

R&D 예산 매년 늘지만 광주·전남 지원 최하위

광주 1.4%, 전남 1.1% 수준

저성장·저임금 악순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줄여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R&D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광주·전남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사업 지원도 광주·전남지역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해 저성장에 머물고, 덩달아 지역 기업의 임금 수준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이 15일 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R&D 총예산은 5년 전보다 두배 정도 늘었으나 수도권에 무려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전국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기준 총 2조5954억6400만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9.2%인 1조2792억7700만원이 투입된 반면, 광주·전남의 R&D 예산은 각각 1.4%(353억5300만원), 1.1%(281억55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소별 위기 속에서 강원 0.7%(173억8200만원), 전북 3.1%(806억2400만원), 충북 3.4%(876억68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방 분권에 적극적인 외형을 취하지만, 실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이나 '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합 논의'를 지켜보면, 내

실있는 균형발전, 실질적 예산분권 등 정작 정부가 해야 할 고민들이 통째로 빠져있다.

지역 풀뿌리 경제라 할 수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 지원도 인색했다.

이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용빈 의원에 제출한 R&D 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2년 8월 현재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지원된 R&D 예산은 532억2640만원(전국의 2.2%), 전남은 429억200만원(1.8%)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체의 22.5%인 5346억1800만원, 경기도는 전체의 28.6%인 6796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지원이 적은 것은 이 지역의 전반적인 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사업제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월급여액(상용정액급여+상용초과급여·세금공제 전)은 광주 314만1221원·전남 335만2080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4번째, 전남은 9번째로 낮았다.

이용빈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지역 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R&D 예산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데, 비수도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R&D 예산의 증가분을 지역에 공정하게 배분해 지역도 연구 개발에 오롯이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효성 조석래 전 회장, 세금 소송 파기환송 사실상 승소

1심 850억→2심 380억...대법 "가산세 32억원 다시 심리"
"주식 담보대출로 구입한 새 주식에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을 350억원대까지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 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법구세정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

여세와 가산세 644억원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원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원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구 주식의 차명 보유 문제로 증여세를 매겼으니 신 주식에 증여 의제 규정을 반복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2심은 명의신탁을 한 조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약 32억원)는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억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바르게 걸어요" 올바른 보행습관 형성을 위한 '노르딕워킹 원데이 클래스'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15일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강사와 함께 올바른 걷기 자세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해남 산이면에 세계적 생태정원도시 조성

해남군 산이면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돼 산림과 바다 등 서남해안 전체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15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이번 사업이 포함돼 해남군 솔라시도에 정원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세계적인 생태정원도시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은 ▲바다, 호수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최초의 해안가로(路) 정원 ▲남부지역 특화 수종으로 구성된 도시정원가도(街道)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솔라시도는 도시 전체를 어린이 정원, 갈대 정원 등 9개의 테마별 특색을 담은 16만평 규모의 정원이 조성되고 있어 이번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생태정원도시의 선도적인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해남 솔라시도 생태정원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관광자원인 해남 대흥사, 완도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경관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남 솔라시도가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베이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생태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경기,수도권 투자
10억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반려동물 친화도시 전남

▶1면에서 계속

순천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에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영 동물병원이 들어서 담양군과 같은 공공진료소 형태로 운영된다. 장흥과 해남은 올해와 내년까지 동물보호센터를 조성, 지역 내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도 쉽지 않은 반려인들의 고충을 감안한 반려동물 장례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현재 함평과 여수에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장례식장이 운영중이며 조만간 목포에도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들어서다.

광주에 한 곳 있던 업체가 지난해 휴업에 들어가면서 현재 합평 시설이 전무해 전남·북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광주지역 반려인들이 적지 않다는 게 지역 반려인들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14개 시도에서 60곳이 운영중이다.

반려인·반려동물 함께 어울리는 펫 축제도=화순의 경우 내년부터 고인돌축제 시기에 반려인·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축제'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동구리 호수공원 일대를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도 지정했다.

해남에서는 최근 해남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 일대에서 열린 '2022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기간 중 반려동물 동반 캠핑 특화 구역을 운영했다. 펫 전용 캠핑장, 반려견 전용 비치도 마련되고 반려견 간식 만들기 체험 등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펫터제 교육을 받은 후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도 열었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분할합병에 관한 공고
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서림전력공사'(을)는 2022년 9월 15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의 결의 절차를 밟아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각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가야 하며 이에 공고함.
2022년 9월 16일
"갑"(양도인) 주식회사 현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18(일곡동)
대표이사 신미정
"을"(양수인) 주식회사 서림전력공사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18(석남동)
대표이사 이은우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방영혁(72032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일곡산정로 12, 104동 1302호 (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방 방영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2년9월1호로 신청하여 2022년 9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9월 16일
• 상속인 : 방종혁(691216-XXXXXX)
광주 북구 설죽로 565, 103동 1106호 (일곡동, 한국아파트)
• 신고기간 : 2022. 9. 16. ~ 2022. 11. 26.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방종혁의 주소

분실공고
• 분양계약서, 플러스옵션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번지일원, 무등산 자이 & 어울림 아파트 203동 1101호
• 계약자 : 장 옥 순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9월 16일

상행안내
9월17일(토)
▲광주호선회 9월17일(토) (군산 고군산군도 '관리도' 섬산행) 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동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